

하나금융그룹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은행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III

말러
교향곡
9번

Mahler

9

03. 13 Thu

7:30 PM

LOTTE
CONCERT HALL

지휘
함신익

후원 하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NGSAN WEATSE FST SEBONG GOLFZON DSK 화광교역(주)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감사

김일규

이사

문형주

안정근

김일규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4~2025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주)풍산

말리 Circle

(유)세봉

(주)에프에스티

(주)티에스이

브람스 Circle

(주)디에스케이

(주)GFS

(주)골프존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주)면사랑

(주)세아제강

영앤진세무법인

베토벤 Circle

엔피코리아

최영애

장원기

송백규

쇼팽 Circle

문형주

안정근

(주)다진

(주)KNW

박선주

모차르트 Circle

(주)코스모엔

김기태

서석호

신영만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하이든 Circle

고운영

김종혁

신갑순

이근혁

계양 수치과

이숙희

김성렬

백방미

김은주

이용돈

권영성

이미영

최상욱

김종훈

김영기

한문성

김소정

박진형

유소정

박지윤

장윤정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 음악가들과 더불어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리를 떠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창단 이후에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꿈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함께 발맞추어 이뤄갈 것입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Gustav Mahler

1860~1911

Symphony No.9 in D Major

교향곡 제 9번 라장조

I. Andante comodo

마음 편안히 느린 속도로

II. Im Tempo eines gemächlichen Ländlers. Etwas täppisch und sehr derb

편안한 렌틀러 템포로. 조금 서두르고 매우 거칠게

III. Rondo-Burleske: Allegro assai. Sehr trotzig

론도-익살스럽게 : 아주 빠르게. 매우 고집스럽게

IV. Adagio

매우 느리게



심포니 송의 연주자들

예술감독	함신익				
바이올린	송지원*	박진형	강은실	김은지	김하영
	민슬기	박지윤	심소연	오하은	윤주은
	이수민	이영인	이예원	이재흠	이지현
	이화진	정예린	정예은	조정민	최연수
	한예슬	홍예슬			
비올라	서예슬	김용수	김지현	김효경	송수민
	심정우	안예림	이유나	장윤정	정소현
	조선유	황유선			
첼로	홍보경	최예지	김민정	권혜림	서라미
	양채원	오소연	이혜인	정다인	정혜슬
	최영	허규희			
더블베이스	고부현	강선롤	곽현혜	김태현	윤영진
	이정빈	장유리			
플루트	서지원	김예건	박준희	오나영	
피콜로	김승주				
오보에	김예은	김소정	안세아	현지희	

잉글리쉬 호른	안세아				
클라리넷	허수진	김리후	이나원		
E♭ 클라리넷	최윤석				
베이스 클라리넷	김영호				
바순	김윤지	민서영	이승은	홍윤서	
콘트라바순	민서영				
호른	Edward	김효정	조종현	주혜준	황재빈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조은별		
트럼본	김성수	김재원	정영수		
튜바	김지은				
팀파니	황영광	이성하			
타악기	김슬민	유요한	윤지현	이성하	
하프	추민경				
크리에이티브 팀	신현숙	고부현	구현정	김소정	봉하륜
	유소정	이수민	이창훈	최아현	

*약장 ※명단은 악장/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지휘자

함
신
익

함신익과 심포니 송이 창단 10주년을 넘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원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동안의 10년이 **교군분투** 孤軍奮鬥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의 시간은 **절차탁마** 切磋琢磨의 시간이 될 것이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지휘자 함신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연주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위해 매분 매초를 절차탁마하고 있다.

함신익은 대전시향(2001~2006)과 KBS 교향악단(2010~2012)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2014년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창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했다. 기회가 필요한 젊은 유망 연주자를 단원으로 선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는 ‘뉴윌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연주자들을 선발해 2년간 프로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은 뒤 원하는 곳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한국에도 그런 역할을 할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원들이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고 함께하는 동안 되도록 심오한 레퍼토리를 다루고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집중하여 연습하도록 합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요.”

지휘자 함신익의 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에서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 아니다. 가난하지만 신신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라이스대학과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공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예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록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포니 송의 성장의 비결은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진한 연습에서 거두는 실력입니다. 저는 단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단원의 실력이 제고되면 연주의 완성도는 배로 좋아집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공연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열정적으로 연주하기에 모두가 특별하게 부각됩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송년연주회에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베토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연 시간 내내 기립해 연주를 하기도 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연주하는 곡은 다르지만 언제나 특별함을 유지한다. 지휘자의 통찰력에 따른 연주자들의 열정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고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더 윈’프로젝트로 전국의 문화예술 소외자를 위해 연주로 공헌하는 것도 심포니 송의 자랑 중 하나다. 더 윈 프로젝트로 음향이 완벽하게 구성된 실내에서만 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오케스트라의 편견을 무너뜨리며 클래식 장벽을 낮춘 결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다음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보다 환경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은 더욱 특별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을 것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횟수와 퀄리티 또한 제고할 것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2025년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전부를 청중에게 전달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악이 모든 것인 함신익, 그가 심포니 송과 함께 펼칠 예술가 정신을 기대한다.

Gustav Mahler

Symphony No. 9

말러 교향곡 9번
회상, 추억,
그리고 Lebewohl

보헤미아 태생의 유대계 오스트리아 지휘자 구스타브 말러(Gustav Mahler, 1860~1911). 그는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11개의 교향곡(대지의 노래와 미완성 10번 본 포함) 시리즈와 7개의 가곡을 통해 삶과 죽음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었다고 평가받는다. 지휘자로서 20세기 초 유럽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와 더불어 성공적인 사회적 지위를 누렸지만, 그의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대 지휘자들에 의해 재조명받기 전까지 오랜 기간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1908~1989), 발터(Bruno Walter Schlesinger, 1876~1962), 오토 클렘페러(Otto Klemperer, 1885~1973) 등 거장 지휘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잦은 연주 덕분에 현재는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와 음악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교향곡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말러는 “교향곡은 하나의 세계와 같이 모든 것을 포함해야한다”는 베토벤식 관점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한 교향곡 안에 작곡 당시 가졌던 세계관, 문제에 대한 철학적 해석, 나아가 삶과 죽음에 대한 해법을 모두 담으려고 하였으며 그로 인해 교향곡의 길이와 규모는 굉장히 커졌다. 그 예로 그의 《교향곡 3번》과 《교향곡 9번》은 일반적인 교향곡 레퍼토리 중에서 가장 긴 약 10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한다. 그의 《교향곡 8번》은 천 명이 넘는 연주자에 의해 초연되었으며 교향곡 중에 가장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갖고 있다. 특히 니체와 괴테의 철학, 중세 종교 상징주의와 영성(靈性)에 관련된 철학적 주제마저 가사를 통해 방대하게 다루었다. 이 거대한 양적 공세(量的攻勢)는 궁극적으로 그의 오랜 풀리지 않는 철학적 고민, 즉 삶과 죽음에 대한 해법에 다가서려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 과정이 그의 교향곡 시리즈를 통해 드러나는데 1번 교향곡 “거인”에서는 생의 의미가 예술가의 탄생, 성장, 죽음, 영혼의 승화라는 궤로로 묘사되며 다소 일반적인 철학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2번 교향곡 “부활”에서는 윤회(輪廻)와 환생(還生)이라는 동양철학을 유대교 기반 위에서 풀어가며 죽음의 문제에 관한 하나의 퍼즐 조각을 완성하였고 3번 교향곡에서는 우주, 자연의 순환, 영혼과 7개 차원의 존재론적(存在論的) 논의에 집중하였다. 4번에서는 좀 더 실제적인 형상 즉 가상(假想)의 아이가 죽어 천국에 이름으로 죽음에 대한 보상(補償)을 받는다는 로마 가톨릭의 논리를 빌려오기도 한다. 6번 “비극적”과 7번 “밤의 노래”, 8번 “천인 교향곡”을 통해서 비극과 죽음 그 자체를 깊이 파고 들기도 하였는데 궁극적으로 “대지의 노래”를 통해 인생무상의 예술적 결론에 다다른다. 그런데 이러한 심오하고 치열한 삶의 철학적 논증으로서의 교향곡 시리즈에서 5번 교향곡은 매우 색다른 면모를 보인다. 분위기가 상당히 밝으며 즐겁고 교향곡의 결론이 꽤 가벼운 것이 그의 다른 작품과는 상당한 이질감을 보이는데 그 원인을

바로 20대의 아름다운 여인 알마 신클러(Alma Schindler, 1879~1964)와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삶의 의미와 죽음이라는 난제(難題)에서 잠시 벗어나 연인과의 교감과 사랑의 기쁨을 통한 생의 축복을 만끽하는 5번 교향곡은 사실 앞선 4개의 교향곡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말러의 곡이라 보기에 꽤 낯설게 느껴질 만큼 건강하다. 이 일탈(逸脫)의 해방감은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시절 그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혹자들은 이 보석같이 투명하게 빛나는 작품을 두고 불만을 토로한다. 교향곡의 결말이 다른 작품과는 달리 지나치게 가볍다며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교향곡 5번은 알마를 향한 사랑을 담은 일종의 자전적인 작품으로 그중 4악장은 직접적으로 청혼을 위해 쓰였으며 사랑의 고백을 표현한다. 19살 연하의 미모의 여인 알마. 말러는 그녀를 (여름이면 작곡에 전념했던) 호숫가 오두막집으로 데려가서 그가 막 작곡을 마친 교향곡 5번 4악장을 들려주고 선물했다. 그녀는 이 곡을 처음 들어보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감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5번 교향곡과 오늘 연주될 9번 교향곡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특별한 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교향곡 6번~9번 및 대지의 노래를 기존 비평가들의 해석과는 사뭇 다르게 풀어갈 수 있으며 나아가 말러의 감정과 생각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본다. “죽음의 철학”에 궁극적인 종지부를 찍는다고 평가받는 9번 “고별” 교향곡. 과연 작곡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시대를 마감하며 또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며 무엇에게 작별을 고하는 음악인 것일까?

말러의 교향곡 9번은 1909년~1910년에 걸쳐 작곡되었으며 교향곡 10번의 미완성으로 그가 완성한 마지막 교향곡으로 기록된다. 9번을 살펴보면 악장의 배치뿐만 아니라 조성의 변화에 있어서도 기존의 작품들과 차별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각 주제와 동기가 기존의 것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작곡기법에 있어서 그 길이와 표현되는 선형적(線型的) 낭만성이 크게 다르다.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과 조성체계 및 동기 작곡기법의 해체를 시도하려는 듯 보인다. 분명한 점은 8번 교향곡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 어휘를 최고의 경지에 올려놓았던 말러. “대지의 노래”(정식 교향곡으로 번호가 매겨지지 않았지만 4번과 8번과 같이 성악의 비중이 큰 교향곡의 형태를 띠고 있다.)에서 삶과 죽음, 인생무상에 대해 모든 이야기를 끝내버린 그가 이제 와 다시 9번 기악 교향곡으로 이별과 죽음에 대해 했던 얘기를 반복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휘자 레나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은 말러가 사랑했던 후기 낭만주의 사조 내지는 전통적인 교향곡과의 이별을 고하고 나아가 새로운 음악 사조를 여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사실 기능화성의 사용에 있어 과감한 일탈이 행해지고 조성은 기존에 비해 더 모호해졌으며 전음음계(全音音階, whole tone)기법마저 사용되었다. 대지의 노래에서도 그러하였듯 동양음악 풍(Oriental)의 선율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주목할 만한 특이한 것이 아니다. 전음음계는 1894년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가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통해 확정된 오래된 기법이며 이국적인 오리엔탈 풍은 이미 18세기 중반부터 온 유럽에서 유행하던 것이다. 더욱이 이 곡이 작곡된 1910년에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는 온전한 무조주의 음악을 그의 현악 사중주 2번을 통해 보여

주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따라서 후기 낭만주의와 작별을 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가 무조주의를 향해 나아간다는 해석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사실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말러에게서 잠시 눈을 떼고, ‘죽음에 집착한 미치광이 천재’라는 편향된 타이틀을 달아준 그의 철없는 바람둥이 아내 알마 말러(Alma Maria Mahler Gropius Werfel)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1901년, 22세의 알마는 41세의 구스타프 말러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당시 말러는 이미 명성을 쌓은 음악가였다. 두 사람은 이듬해 결혼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조용히 작곡에 몰두하고 싶었던 말러와 사교와 파티를 즐기던 알마는 끊임없이 충돌했다. 또한 알마는 젊고 매력적인 남성들과 염문을 뿌려 말러를 끊임없는 질투와 불안 속에 살게 했다. 게다가 씹씹이가 컸던 알마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말러는 더욱 바쁘게 일해야 했다. 1907년, 첫째 딸이 세상을 떠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신경질적인 아내를 남겨둔 채 말러는 각국을 돌며 연주에 몰두했고, 홀로 남겨진 알마는 외로움이 더해져 더 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다. 급기야 1910년, 알마는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의 휴양도시 토벨바트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Adolph Gropius, 1883~1969)와 본격적인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 그해 여름, 그로피우스는 알마를 차지하기 위해 담판을 지으러 토블라흐(Toblach in Italy)에서 곡 작업 중이던 말러를 직접 찾아가다. 아내의 연인을 마주한 말러는 그를 별장으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었다. 거실과 방을 오가며 감정을 억누르던 말러는 알마에게 선택을 요구했고, 그녀는 결국 말러를 택했다. 당시 빈 최고의 음악가였던 말러의 부와 명예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상심한 그로피우스에게 알마는 편지를 보냈다. “내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밤낮으로 당신만 생각합니다. (···) 당신이 성공할수록 당신은 내 것이 됩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고통 받던 말러는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었고, 네덜란드에서 휴양 중이던 프로이트를 찾아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작곡된 작품이 바로 교향곡 9번이다. 이듬해인 1911년 5월 18일, 말러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생전에 미완성으로 남은 교향곡 10번의 자필 악보를 폐기하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알마는 이를 다른 작곡가에게 맡겨 완성하여 엄청난 판권 수익을 올린다. 알마는 말러가 죽고 난 이후 인터뷰와 자서전을 통해 말러의 극심한 정신병으로 인해 본인의 삶이 피폐해졌으며 더군다나 말러의 병약한 신체로 인해 성생활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녀의 이러한 증언은 훗날 말러의 성품과 작품에 대한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알마는 말러가 죽은 이후에도 줄곧 그로피우스와의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 와중에 코코슈카(Oskar Kokoschka·1886~1980, 오스트리아 화가, 극작가)와 몇 년간 만나며 동거하다가 불행한 이별을 한 뒤 1915년 충

Gustav Mahler composed his Symphony No. 9 between 1908 and 1909, making it the final symphony he completed. Performances typically last between 75 and 90 minutes. In a 2016 BBC Music Magazine poll, conductors ranked Mahler’s Ninth as the fourth greatest symphony ever written. Like his earlier work, Das Lied von der Erde, Mahler never witnessed a performance of this symphony. Although often labeled as being in D major, its tonal structure is fluid. The first movement begins in D major, its tonal structure is fluid. The first movement begins in D major, while the symphony concludes in D♭ major. Despite adhering to the traditional four-movement form, the symphony is unusual because both the opening and closing movements are

동적으로 그로피우스와 재혼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1917년 프란츠 베어펠(Franz Wefel, 1890~1945, 극작가)와 재혼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신뢰가 지 않는 그녀의 행적과 말러의 직접적인 증언을 종합해보면 말러를 향한 그녀의 증언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말러를 그저 ‘죽음’에 집착해있는 음악가라고 치부해버리고 9번 교향곡을 그것에 맞추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내의 불륜과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극심한 상처와 스트레스, 그리고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에 말러는 결국 9번 교향곡을 통해 알마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말러는 여전히 알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9번 교향곡의 4악장에서 그의 진심이 여실히 드러나며 특히 뒤이은 교향곡 10번의 악보 곳곳에 말러는 괴로움을 고백하는 낙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신(알마)만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거예요, 아! 아! 아! 나의음악이여, 안녕! 안녕! 안녕!’, ‘당신을 위해 살고 당신을 위해 죽으리라, 알름쉬(für dich leben, für dich sterben, Almschi)’라는 가슴 아픈 메모를 남긴다. ‘알름쉬’는 알마의 애칭이다. 이렇듯 그의 음악, 세상과의 작별은 사실 9번이 아닌 10번 교향곡에서 드러난다. 그동안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잘못 알려진 말러. 그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미치광이에 극도로 죽음에 열광하는 광기서린 천재가 아닌 로맨티스트이자 한 여인을 너무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몸부림쳤던 여린 영혼의 소유자였다. 성경의 인물 중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두게 되어 끝까지 품었던 호세아(Hosea) 선지자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

이 곡에서는 그의 기존의 교향곡의 많은 주제가 회상되는데 특히 5번 교향곡의 많은 주제가 인용된다. 말러에게 있어 알마와의 결혼은 그의 예술관을 뒤흔들 만큼 영향력이 큰 사건이었고 따라서 기존의 진부한 해석, 삶과 죽음의 철학적 고찰로서의 음악 작품이라는 클리셰(Cliche)에서 잠시 벗어나 그의 후기 교향곡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5번 “사랑” 내지는 “청춘” 교향곡 이후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의 “비극”은 6번 교향곡 “비극적”에서 절규와 눈물로 그려지고, 그런 절망적인 삶 가운데 “괴물”이 되어가는 자신을 그린 7번 교향곡의 광기와 잔인함은 섬뜩하기 그지없다. 이 모든 것이 업보(業報)로 뒤엉켜 있는 속세 내지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되찾아보고자 자신의 깊은 지성과 예술혼을 불태워 작곡해 사랑의 신 에로스(Eros)에게 그리고 아내 알마에게 헌정한 8번 교향곡. 대지의 노래를 통해 자신의 생의 허무함을 노래해보지만 결국 9번 교향곡에 와서는 그녀를 놓아보겠다고 몸부림치게 된다. 하지만 10번 교향곡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며 외롭게 죽어간 구스타프 말러. 말러는 이 9번 교향곡에서 너무도 사랑하는 알마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상하다가 그녀에게 눈물겨운 작별을 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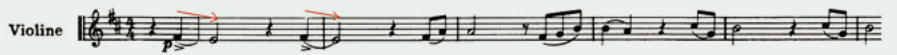
slow. As is common in Mahler’s compositions, one of the middle movements features a ländler. Mahler passed away in May 1911 without hearing his Ninth Symphony performed. Many interpret the symphony’s ending as his farewell to life, especially given its composition after the death of his daughter Maria Anna and his diagnosis of a fatal heart condition. However, some dispute this notion, pointing out that Mahler believed himself to be in good health during its creation. He had enjoyed a successful tenure conducting the New York Philharmonic and had planned an extensive 1910–11 tour. Additionally, he continued working on his unfinished Tenth Symphony until his death from endocarditis.

제1부

‘Lebewohl’ 고별, 告別

1악장. Andante comodo

확장된 소나타 형식으로 연주 길이는 무려 30분에 육박한다. 교향곡 전체의 요약본으로 이 악장만으로 교향곡 전체를 설명해 낼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본인을 유대인으로 여겼으며 특히 선대 유대 문화를 사랑하였다. 이 악장은 유대 문학의 특징 중 요지를 서두에 매치하는 문학 기법을 따른다. 예를 들어 성경의 창세기 창조 부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였음을 언급하고 다음 절부터 다시 그것을 반복하는데 이로 인해 가끔 신학적 혼돈이 오기도 한다. (간격이론, Gap Theory). 더욱이 히브리 문장구조는 키아즘(Chiasm) 즉 글의 후반부가 전반부에 관해서 도치되고 평형을 이루는데 이 교향곡은 정확히 그 구조를 따라 1악장과 4악장이 도치 병행을 이룬다.



[A:제 1주제: Ewig 동기변주]

곡은 ‘대지의 노래’로부터 동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대지의 노래 6악장 마지막의 E음(미)에서 D음(레)으로 내려가는 ‘Ewig(영원)’가 이곳에서 변주되어 제 1주제로 사용된다. 특히 청춘 교향곡 5번 4악장에서 그녀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사용된 하프의 노크(knocking) 주제가 전위되어 느린 Walking Bass 동기로 나타난다.



[A:제 1주제: Ewig 동기변주]

제 1주제와 함께 등장하는 첼로의 부점 리듬(3:2:3, 이를 두고 번스타인은 말러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비올라의 어지러운 꾸밈음 동기가 악장 전체를 지배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악장은 전체 교향곡의 축소판으로 앞으로 2, 3악장에서 논의될 회상, 즉 그의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변화무쌍한 날씨에 빚대어 표현하고 있다. 기존 교향곡에서의 많은 어휘가 인용된다.

점묘주의를 연상하듯 동양적인 여백의 미 가운데로 선율이 등장하며 악장이 시작되면, 주요 모티프들이 스쳐 지나가듯 빠르게 지나간다. 이 주제는 평안을 갈망하는 듯 서정적이지만, 말러 특유의 긴 호흡보다는 심표를 활용해 짧게 분절된 흐름을 보인다. 두껍지 않은 오케스트레이션에서 호른과 클라리넷이 독특한 대위법을 펼친다. 수수께끼 같은 여섯 마디의 도입부를 지나, 제 2바이올린이 제시하는 D장조의 부차 주제 역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주제는 F#에서 E로 하강한 뒤 으뜸음 D로 해결되지 않고 E에서 머무르며 강한 긴장감과 불안정을 형성한다. 이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고별’의 주제 선율과 화성이 유사하여 ‘이별’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동기는 뒤이은 2악장에서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4악장에서 마침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이에 대비되는 제 2주제는 긴 호흡의 단조 선율로 등장한다. 깊고 어두운 정열을 품은 이 주제는 팀파니, 트롬본, 더블베이스가 연주하는 묵직한 화음과 함께 제시되어 제1주제와의 대비를 더욱 강조한다. 이때 현악기는 5번 교향곡 4악장의 사랑의 주제를 전위하여 변주한다.

1악장의 중반부에서는 작곡가가 남긴 메모가 눈에 띄는데, “오! 젊음이여! 사라졌구나! 오 사랑이여! 가버렸구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한, 독주 바이올린 선율이 등장하는 부분에는 “안녕! 안녕!

I. Andante comodo

The first movement follows a loose sonata form, incorporating tonal contrasts reminiscent of Mahler’s Sixth and Seventh Symphonies. It begins with a hesitant, syncopated rhythm that Leonard Bernstein interpreted as a reflection of Mahler’s irregular heartbeat. In its brief introduction, two additional motifs emerge: a four-note harp motif that recurs throughout the movement and a muted horn fanfare. During the development, the theme appears prominently in the horns and clarinets, with a descending third expanding into a fifth. At its peak, trombones and tuba powerfully reinforce the heartbeat motif, leading into a solemn funeral march accompanied by low bells, which appear only in this movement.

Near the movement’s end, Mahler employs intricate polyphony, with piccolo, flute, oboe, and solo violin mimicking bird calls. Alban Berg described this passage as a “vision of the hereafter.” References to other works include Beethoven’s Piano Sonata Op. 81a and Johann Strauss II’s waltz Freuet Euch des Lebens.

(Leb' wol! Leb' wol!)"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이러한 말러의 메모로 인해 후대의 비평가들은 이 교향곡을 '죽음의 교향곡'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말러는 이 교향곡을 완성한 지 1년 후, 10번 교향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 체계가 무너졌고,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결국 세균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작품이 '죽음을 예고하는 교향곡'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작곡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말러는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며 창작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컨디션을 관리했고, 뉴욕 필하모닉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게다가 향후 3년간의 시즌 계약도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예견한 작품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악보에 적힌 글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 식어버린 알마의 사랑과 이별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중반부는 이중 발전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발전부는 호른의 팡파르로 시작된다. 이어서 약음기를 낀 트롬본과 튜바가 음산한 지속음을 연주하는 가운데, 하프가 주요 모티브들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며 도입부의 점묘적인 분위기를 반복한다. 이후, 약음기를 낀 첼로가 따뜻한 선율을 연주하며 안정감을 주는 듯하지만, 곧이어 트럼펫이 차분했던 분위기를 깨뜨린다. 특히, '분노하여'라는 지시어가 붙은 부분에서는 기괴한 불협화음이 등장하며 고통스러운 절규를 표현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전부 역시 트롬본의 팡파르로 시작된다. 약음기를 낀 트롬본이 연주하는 선율은 교향곡 6번 '비극'의 주제 동기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후 등장하는 호른과 목관의 '영원' 모티브와 강렬한 대조를 이룬다. 5번 교향곡 1악장의 부차주제도 인용된다. 코다에서는 4악장 후미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고별의 음악적 제스처가 예고되며 하프의 노크 주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곡은 단아하게 끝마친다.

제2부

“희상”

2악장. Im Tempo eines gemächlichen Ländlers. Etwas täppisch und sehr derb

트리오를 포함하는 론도 형식(A-B-C-B-C-A-B-A)의 악장이다. 말러의 다소 행복했던 기억을 소환한다.

사랑이 시작될 때의 그 뜨거움, 신혼의 행복, 아이의 탄생 등 알마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 짙은 렌틀러 (Ländler, 오스트리아 고지대에서 추던 춤곡으로 모차르트와 베토벤, 슈베르트, 특히 말러의 많은 작품 속에서 사용된다.) 민속 음형 안에서 상기된다.



[2악장 렌틀러 동기]

렌틀러와 빠른 왈츠가 번갈아가며 진행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3박자의 렌틀러와 왈츠는 다소 익살스럽고 과장된 몸짓으로 표현되어, 마치 어린 시절의 놀이를 연상시키며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도입부의 세 마디에는 '고별 동기'[위 그림 A, 4악장 첫 번째 악보 참조]가 숨겨져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이별을 암시한다. 또한, 제 2바이올린은 민속적인 색채를 강조하기 위해 마치 '피들'을 연주하듯 표현하도록 요구된다. 주제는 즉각적으로 E장조의 왈츠로 전환되며, 유치하리만큼 뻔한 멜로디가 백파이프의 음색을 모방하는 가운데, 바이올린이 렌틀러 선율을 연주한다. '서투르게'라는 지시어처럼 말러는 단순하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멜로디와 빈번한 트릴을 활용하여 렌틀러 선율의 통속적인 특징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유년시절의 향수를 그려내고 있다.

II. Im Tempo eines gemächlichen Ländlers. Etwas täppisch und sehr derb

The second movement comprises a series of dances, beginning with a rustic ländler that becomes increasingly distorted until it ceases to resemble a dance at all. This transformation mirrors elements from the second movement of Mahler's Second Symphony, where a traditional dance theme is twisted into something bitter and mocking. Conventional harmonic progressions become so altered that the initially lighthearted C major ländler morphs into a dissonant whole-tone waltz laden with chromaticism and chaotic rhythms. Amidst these turbulent dances, a slower ländler recalls the sighing motif from the first movement. The piece concludes with a whimsical exchange between piccolo and contrabassoon.

갑작스럽게 템포가 빨라지면서 왈츠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교향곡 5번의 3악장과 5악장에서 등장했던 주요 동기가 인용 및 변주된다. 현악기가 왈츠 선율을 주도하다가, 호른이 등장하여 《소년의 마술 뿔피리》중 물고기에게 설교하는 성 안토니우스에서 가져온 선율을 연주하며 익살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왈츠의 흐름이 더욱 격렬해진다. 이어서 또 다른 분위기의 왈츠가 등장하는데, 3박자 리듬을 집요하게 반복하는 반주 위로 트롬본이 지나치게 대중적인 선율을 연주하며 익살스럽고 과장된 표현을 극대화한다. 이 부분에서는 Whole Tone 스케일이 뚜렷하게 사용되며, 교향곡 2번 2악장의 색채도 엿보인다. 이어서 등장하는 새로운 렌틀러는 한층 느린 템포로 진행되며, 마침내 평온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곧 첫 번째 렌틀러가 다시 등장하는데, 초반의 생동감을 잃고 비올라와 바이올린이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독주 선율을 연주하며 점차 마무리된다. 아도르노(Theodor Adorno, 독일 사회학자 겸 음악학자, 1903~1969)와 멩겔베르크(Willem Mengelberg, 1871~1951)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이 악장을 '죽음의 무도'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필자는 행복한 기억 가운데 배치된 아픔과 상처 정도로 해석한다. 이 곡은 크게 세 가지 무곡 주제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부드럽고 잔뜩한 렌틀러, 두 번째는 거친 왈츠, 그리고 세 번째는 느린 렌틀러이다. 이 세 가지 춤곡이 교대로 등장하며, 중간에는 왈츠 주제 속에 두 개의 렌틀러 주제가 부분적으로 혼합되기도 한다. 아이들의 놀이 같은 천진난만한 분위기가 펼쳐진 후, 곡은 다시 조용하게 마무리된다.

3악장. Rondo-Burleske: Allegro assai. Sehr trotzig

역시 론도 형식 (A-B-A-B-A-C-A)의 악장으로 이번에는 다소 힘들었던 삶의 기억을 다루고 있다. 1악장에서 변화무쌍한 날씨로 간략하게 그려졌던 기억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알마와의 결혼 생활보다는 자신의 음악가로서의 경력에 더욱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이 교향곡에서 가장 독특한 악장이다. 말러는 빈에서 지휘하는 내내 특히 반유대 언론의 공격으로 시달렸다. 음악성과 작곡능력을 비롯한 그의 삶의 모든 측면이 매도당했고 종종 신랄한 만평은 그의 모든 면을 부정시켰다. (...) 부를레스케는 본질적으로 말러 자신에 대한 조소이다.”

마이클 틸슨 토머스

Michael Tilson Thomas, 뉴 월드 심포니 예술감독, 1944~

3악장 첫머리의 스케치에는 “아폴로에 있는 내 형제들이여”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확한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확정된 바는 없지만,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다. 첫째, “Apollo”는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Apollo)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아폴론은 음악, 예술, 시, 조화, 그리고 빛의 신으로, 말러가 자신의 예술적 형제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 즉, 말러가 예술가, 음악가, 혹은 이상적인 예술 정신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아폴로에 있는 형제들”이라 부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플라톤 철학에서 아폴론은 이상적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자신이 추구



구스타브 말러와 알마 말러

III. Rondo-Burleske: Allegro assai. Sehr trotzig

The third movement, structured as a rondo, highlights Mahler's advanced contrapuntal style. It begins with a sharply dissonant trumpet theme developed into a double fugue. A five-note motif in the strings recalls the second movement of his Fifth Symphony. The term Burleske in the title suggests a parody-like quality, where Baroque counterpoint clashes with modern dissonance. Although burlesque implies humor, this movement is largely characterized by frantic intensity rather than playfulness, save for two brief neoclassical sections that feel more like fleeting recollections. The autograph score bears the dedication “to my brothers in Apollo.”

하는 이상적인 예술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남긴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문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음악가들(베토벤, 모차르트, 바그너 등)에게 보내는 인사일 가능성도 있다. 즉, 자신도 곧 “예술의 이상적인 세계”로 갈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예술적·철학적 의미에서의 아폴론적 이상 세계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예술적 동료들, 혹은 초월적인 음악 세계에서 자신과 같은 길을 가는 존재들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면 ‘풍자와 희화화, 그로테스크’를 뜻하는 ‘부르레스크’(Burleske)라는 타이틀의 이 악장은 동료 음악가 내지는 훌륭한 선배 음악가들과 함께 저속한 비평가들과 언론들에 맞서는 풍자적 대립이라 풀어볼 수 있다. 5번 교향곡 2악장의 동기가 빈번히 인용된다. 5번 교향곡 1악장 장송행진곡에서 시작된 삶에 대한 두려움(결혼에 대한)과 혼잡한 현실에 대한 표상이 다른 교향곡의 주제들과 더불어 인용된다. 이는 1번 교향곡 4악장의 주제 소절과 결합되어 있다. 교향곡 4번 2악장에서 등장하는 ‘죽음의 신’ 동기가 곡에 전반적으로 차용되기도 한다.



A: 5번 2악장 동기

B: 1번 4악장 동기

[3악장 주요 주제]

전음음계가 지배적인 뒤틀린 구조의 푸가가 등장한다. 그런데 그 형태가 고상하기보다는 다소 어지러워 보인다. 불현듯 트럼펫은 아폴론의 고귀한 이상향을 그리지만 장면이 끝나가기가 무섭게 클라리넷이 트럼펫의 주제를 비틀고 왜곡해 버린다. 말러의 제자이자 지휘자인 멩겔 베르크는 이 장면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오케스트라에게 “사탄” 또는 “공포의 찡그림”처럼 연주하라 지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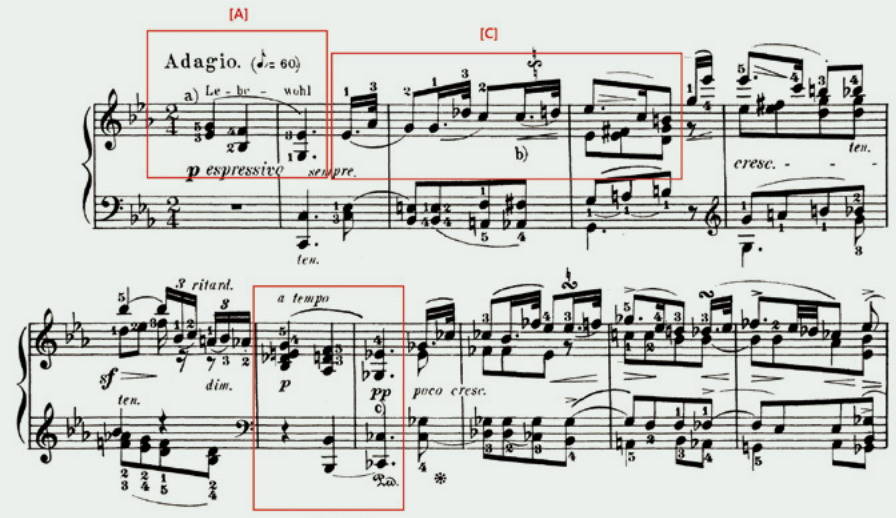
첫 번째 트리오에서는 헝가리 작곡가 레하르(Franz Lehar, 1870~1948)의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Die lustige Witwe)’의 주요 선율이 인용되어 조소와 풍자를 더해가며, 두 번째 트리오에서는 교향곡 3번 1악장 선율이 패러디된다. 앞선 두 악장과 달리, 이 악장은 점점 격렬해지며 혼란스러운 질주로 치닫고, 결국 파괴적인 운명의 장난, 죽음의 그림자, 혹은 비평가들을 향한 맹렬한 공격과 함께 화려하게 마무리된다.

제3부

‘Lebewohl’ 고별, 告別

4악장. Adagio. Sehr langsam und noch zurückhaltend

론도 형식의 악장이다 (A-B-A-B-A). 연주 길이는 1악장과 같이 30분이며 메시지는 이제 이별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 마침내 마음에서 그녀에게 놓아주려는 듯 아쉬움이 가득하다.



[A]

Adagio. (♩ = 60)

a) Le - be - wohl

p espressivo sempre

[C]

b)

cresc. - ten.

[B] 화성진행

[Beethoven Farewell Sonata 1악장 주제부]



1892년의 말러

IV. Adagio. Sehr langsam und noch zurückhaltend

The final movement, marked zurückhaltend (very slowly and held back), begins with strings alone. Scholars have noted a resemblance between its theme and the hymn Eventide (Abide with Me). A passage from the Rondo-Burleske resurfaces, transformed into an elegiac statement. Following several intense climaxes, the music gradually dissolves into silence. The symphony concludes with a poignant reference to Mahler’s Kindertotenlieder, quoting the phrase “The day is fine on yonder heights.” The final note is marked ersterbend (dying



고별 소나타 [C]의 변주

고별 소나타 [B]의 인용

[4악장 주제]

[C]동기가 변주되어 서두를 장식하고 3마디째의 론도 주제는 ‘고별 동기’[A]로 시작한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6번 ‘고별’의 1악장의 G음(미), F음(레), E플랫음(도)으로 하강하는 ‘Le-be-wohl’의 동기[A]와 그 두 번째 화성 진행[B]을 도입부에 응용했다. 두 번째 주제는 바이올린과 저음악기 콘트라바순, 첼로, 더블베이스가 노래한다. 이는 ‘대지의 노래’ 6악장에서 시냇물을 노래하는 레치타티보에서 유래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베토벤 “고별(Lebewohl)” 소나타를 인용하여 작별을 고하고 있지만, 주제는 찬송가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해주세요)와 뒤섞여 있는 점이다. 분명히 그는 지금 신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알마에게 작별을 고하면서도 그것이 그의 진심은 아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돌아와 함께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애원이자 구애이다.



1. A - bide with me; fast falls the e-ven-tide; the dark-ness deep-ens;

[Abide With Me]

8번 교향곡을 통해 고도의 지성(知性)으로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이제 이 교향곡에서는 진실한 눈물로 그녀를 붙잡아 보려 하고 있다. 악장 말미, 절규하듯 터져 나오는 강렬한 울음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어지는 사라져가는 음형은 깊은 좌절과 체념을 담아내며 가슴 아린 슬픔을 전한다. 이 체념은 대지의 노래를 통해 그가 깨닫고 배운 동양적 순응과 닮아 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의 비극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슬프다. 절정에서 폭발하지 않고, 억눌린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음형에 목이 메인다. 하프의 “딩동딩동” 울림은 한층 더 불안정한 전위를 형성한다. 그러나 종결부에 이르면, 다른 악기들이 모두 침묵하고 현악기만이 남는다. 악보 위에 적힌 ‘죽어 가듯이’ (ersterbend) 라는 표현대로, 끊어질 듯 희미한 소리로 연주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말러의 가곡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속 “저 높은 곳은 맑은 날씨” (Der Tag ist schön auf jenen Höh’n)의 바이올린 선율이 조용히 인용된다. 그녀와의 이별, 그녀를 놓아주는 일은 곧 죽음과도 같다. 그러나 내려놓음과 체념은 절망과 무기력한 포기와는 다르다. 대지의 노래에서 9번 교향곡으로 이어지는 이별과 죽음은 절망과, 내세에 대한 희망도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무상함 앞에서 이루어진 조용한 체념. 폭력적인 상실이 아닌 받아들임이다.

이제 심포니 송의 파란만장했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꿈꾸는 이때 말러 9번 교향곡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포니 송이 추구하는 가치.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고 그 귀한 유산을 지켜내고자 몸부림치면서 또한 동시대 작곡가들의 새로운 작품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아가려는 순수함. 혹여 그것이 말러의 다른 작품들처럼 오해를 받을지언정 9번 교향곡에서 표현하는 그 처절하리만큼 순수한 사랑처럼 식지 않는 심포니 송의 열정에 감동한다. 다음 세대 연주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귀한 사명은 계속될 것이다.

글. 박희정 (지휘자, 작곡가)

away), with the last two pages stretching across six minutes—an extraordinary duration for so few notes. Bernstein theorized that this movement foretells three deaths: Mahler’s own, the end of tonality, and the demise of “Faustian” artistic ambition.

Cindy Cox
Dreaming a World's Edge (2022) 아시아 초연

신디 콕스
세상의 끝을 꿈꾸다

Edward Elgar
Cello Concerto, op. 85, e minor

엘가
첼로 협주곡 마단조, 작품번호 85

Robert Schumann
Symphony No. 1 'Spring' op. 38, B Flat Major

슈만
교향곡 제1번 '봄' 내림나장조, 작품번호 38

지휘
함신익

봄의 협주곡

Welcoming Spring

04. 24 Thu

7:30 PM

LOTTE
CONCERT HALL

티켓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후원 아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NGSAN WEATSE FST SEBONG GOLFZON DSK 화광교역(주)

SYMPHONY
SONG
SHINIK HAHN



신년음악회

Beethoven
Prometheus Overture, op. 43

Dvořák
Cello Concerto,
op. 104, b minor
김민지, cello

Beethoven
Symphony No. 5,
op. 67, c minor



Mozart Flute Concertos

Elgar
Introduction and Allegro, op. 47

Mozart
Flute Concerto No. 1,
K. 313, G Major
조성현, flute

Mozart
Flute Concerto No. 2,
K. 314, D Major
조성현, flute

Schubert
Symphony No. 6,
'The Little', C Major



Mahler 9

Mahler
Symphony No. 9, D Major



Welcoming Spring

Cindy Cox
Dreaming
a World's Edge (2022)
아시아 초연

Elgar
Cello Concerto, op. 85,
e minor
Jiapeng Nie, cello

Schumann
Symphony No. 1 'Spring'
op. 38, B Flat Maj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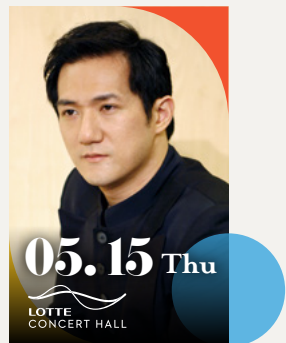
Remembrance Ravel and Shostakovich

Mozart
Piano Concerto No. 21,
K. 467, C Major

Ravel
Le Tombeau de Couperin

Shostakovich
Piano Concerto No. 1,
op. 35, c minor

Ginastera
Variaciones Concertantes



2025 함신익과 심포니 송 MASTERS SERIES

영웅들을 추모하며

Barber
Adagio for Strings

Mozart
Symphony No. 40,
K. 550, g minor

Mozart
Requiem, K. 626, d minor

이해원,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Beethoven & Bruckner

Beethoven
Piano Concerto No. 3,
op. 37, c minor

김규연, piano

Bruckner
Symphony No. 1, c minor

Sibelius Special

Sibelius
Valse triste, op. 44

Sibelius
Violin Concerto, op. 47,
d minor
송지원, violin

Sibelius
Symphony No. 5, op. 82,
E Flat Major



Sir Stephen Hough Plays Grieg and Stephen Hough

스티븐 허프가 초연하는
스티븐 허프 피아노협주곡

Sir Stephen Hough
AGATA a Basque Fantasy
for Orchestra

Grieg
Piano Concerto, op. 16,
a minor

Sir Stephen Hough
Piano Concerto
(The World of Yesterday)
한국 초연

송년음악회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Bach
Christmas Oratorio
BWV 248, Part 1

Corelli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 6, No. 8
(Christmas Concerto)

김순영,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Upcoming Concerts



04.05

서대문구 초청 '더 왕'

홍제 폭포 카페 - 오후 2시
무료 입장

04.19

삼성전자 신춘음악회

삼성전자 서천인재개발원 삼성홀 - 오후 4시

04.21

삼성화재 초청 연주

삼성 코엑스 D 콘서트홀 - 오후 1시

04.24

2025 마스터즈 시리즈 IV
'봄의 협주곡'

롯데콘서트홀 - 오후 7시 30분



티켓 절찬 판매 중

05.15

2025 마스터즈 시리즈 V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
라벨 탄생 150주년'

롯데콘서트홀 - 오후 7시 30분



티켓 절찬 판매 중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시즌패스
Season Pass

조기구매할인혜택

※ VIP석은 100석 한정

3월 31일까지 구매시	VIP석	7회	→ 840,000원	→ 756,000원
	R석	7회	→ 700,000원	→ 630,000원
	S석	7회	→ 490,000원	→ 441,000원
	A석	7회	→ 350,000원	→ 315,000원
10%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A석	7회	→ 350,000원	→ 200,000원
	B석	7회	→ 210,000원	→ 100,000원

티켓 구매 요령

- ① 전화 구매 02-549-0046
-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 ③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송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등급 ☐ R석 ☐ S석 ☐ A석

수령 방식 ☐ 현장수령(추천) ☐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심포니 S.O.N.G
법인/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 예우
마에스트로	3억 원 이상	· 기업연주* 6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 소식 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 원 이상	· 기업연주* 2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 실황 음원 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의 기업방문 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 광고 · 추가 구매 티켓 10%할인
말러	5,000만 원 이상	· 기업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2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브루크너	2,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슈베르트	1,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베토벤	5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 원 이상		



-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Mobile	
	E-mail	
약정금액	※ 월 기부 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3만 원 ☐ 1만 원	
일시납	일시납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동이체 은행정보	은행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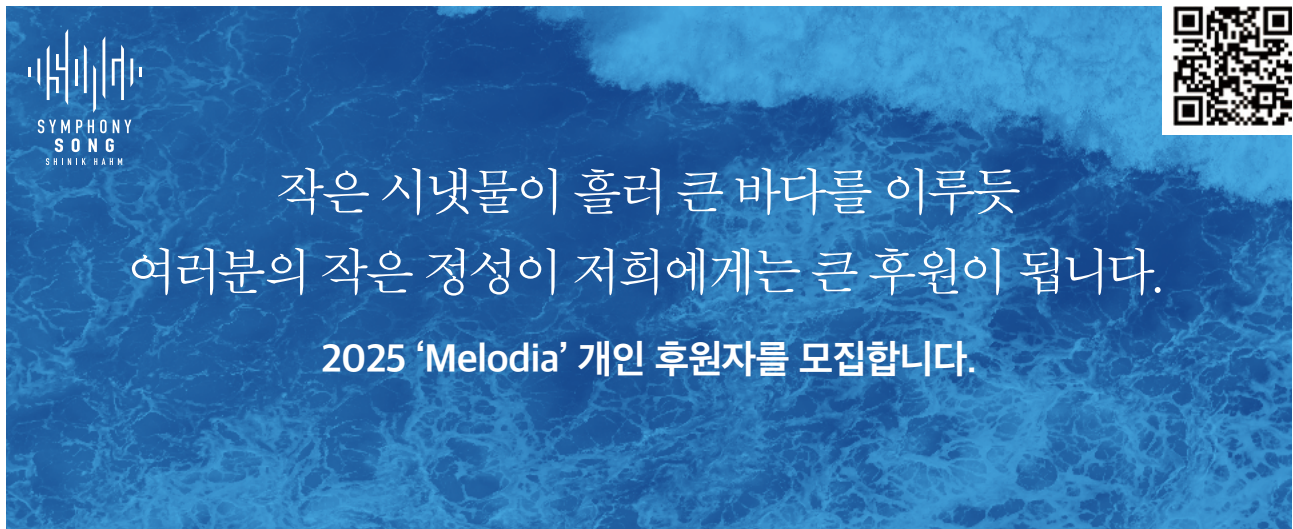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 개인 또는 ☐ 법인	약정금액 _____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신청 방법: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02-549-0046 이메일: management@symphonysong.com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Mobile	
	E-mail	
약정금액	※ 월 기부 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3만 원 ☐ 1만 원	
일시납	일시납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동이체 은행정보	은행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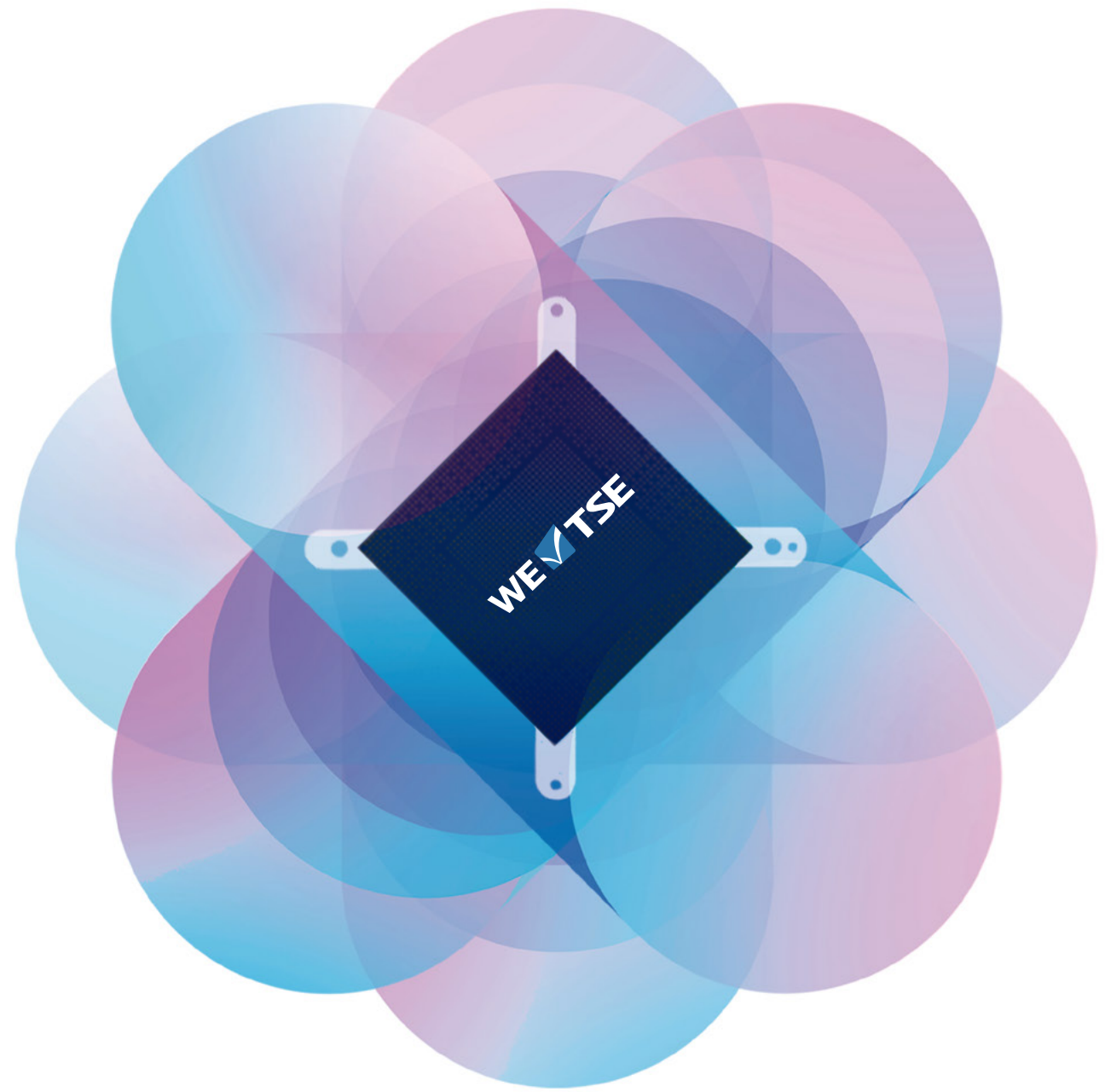
위와 같이 함신익과 심포니 송 정기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신청 방법: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02-549-0046 이메일: management@symphonysong.com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TUNE THE 5G WORLD

TSE는 초고속 반도체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SE IS A GLOBAL LEADER IN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TSE IS A PREMIER SUPPLIER OF BOASTING A BROAD RANGE OF PROBE CARD FOR WAFER SORT AND TEST INTERFACE AND SOCKET SOLUTIONS FOR PACKAGE TEST WHICH IS THE MOST DEMANDING TEST SCENARIOS.

우리는  TSE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189
www.tse21.com
TSE Co., Ltd.

나의
자신감,
삶에 대한
자신감

성형 MOLDING

피부 SKIN

메디스파 MEDISPA

비만 OBESITY

두피 SCALP

항노화 ANTI-AGING

지방성형 A FATTY MOLDING

성의학클리닉 A SEX CLINIC

세포재생전문클리닉 CELL REGENERATION CLINIC

L
A
H
Y
E
O
N

... FA & BIO분야 ...

글로벌 종합 기술기업

이차전지장비, 디스플레이장비, 리니어시스템, 물류자동화 로봇,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대한민국 장비산업분야 및 바이오 보툴리눔독소제제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 · 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서

언더프레서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서를 검색하세요.



OFFLINE SHOP



<언더프레서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UNDER PRESSURE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능

- | | | | |
|------------|---------|-------------|--------------|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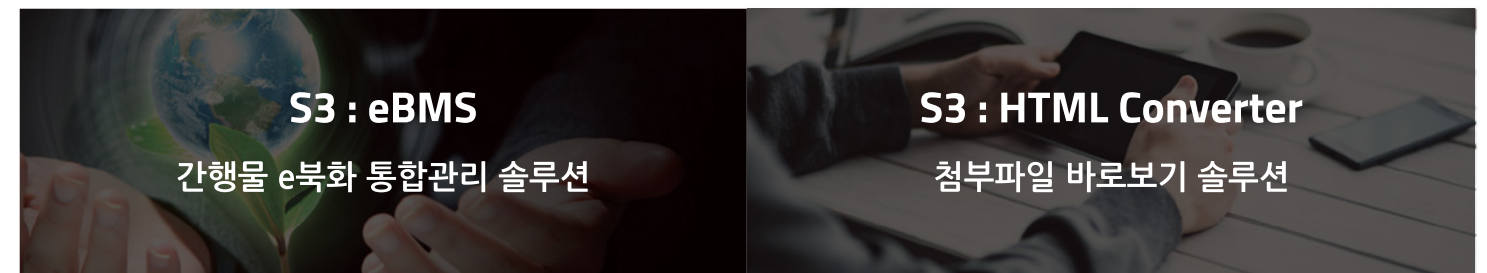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 | | | |
|--------|----------|-------|---------|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케이투웹테크(주)
www.k2web.co.kr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1510(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메일문의 : shlee012@k2web.co.kr / 상담시간 : 09:00 ~ 18:00

02-575-7721